연말 잇단 강력사건에 시민들 불안하다

광주 이발소 여성 업주 숨진 채 발견…해남선 살인 추정 변사체

뺑소니에 장애인 숨지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사고 여전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살인·강도·뺑소니 사망사고 등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퇴폐이발소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타살로 추정되는 업주 A(여·65)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불은 이발소 내부 20여㎡를 태우고 119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발소 내부에 있는 방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침대 아래 바닥에 누운 채 이불이 덮어져 있었다. 숨진 A씨의 입 속에는 카드 영수증과 제습제 등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목뼈 일부가 부러져 있고 코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해남에서 타살로 의심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해남군 산이면 인근 간척지 수로 공사현장 땅속 1m지점에서 발견된 죽은 남성의 목에는 노끈이 감겨 있었다.

지난 4일에는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B(26)씨가 붙잡혔다. B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C(여·57)씨를 모텔 객실에서 수건으로 살해하고, C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맥주·담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연말단골인 음주운전 사고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2시께에는 광주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인근에서 D(42)씨가 SUV 승용차를 후진하다 포장마차와 정차 중인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D씨는 2㎞ 떨어진 동구 서석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D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했다.

23일에는 곡성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E(66)씨가 긴급체포됐다.

E씨는 지난 22일 오후 곡성군 곡성읍 도로에서 1t화물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F(여·78)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F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나주에서는 10대 학생 4명이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 2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분위기를 타고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순찰·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등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3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촬영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B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피해자 찾아가 보복 협박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협박 사건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복을 위해 3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령인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추가 범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A(여·81)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에서 퇴거 불응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용돈 더 달라' 어머니 폭행한 20대 아들 집행유예

'용돈을 더 달라'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패륜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 박상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2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3시께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이번 달 통신비만 25만원이 나왔다. 돈이 없으니 50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B씨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박상재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수단 등을 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어머니 B씨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해 구호가 이뤄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감사 못받겠다"며 천막 친 사립유치원들

사람없는 시위…광주교육청 불법 규정 "철거하라"

광주시교육청의 대대적인 감사에 반발해 오던 광주사립유치원들이 주말사이 광주시교육청에 천막을 폈다. 〈사진〉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시교육청 주차장에 천막 2개를 설치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시교육청이 천막 설치를 불허하자 이날 천막을 설치하고 사라졌다.

시교육청 제지를 뚫고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시교육청 관용차량이 천막농성장 안에 갇히는 촌극도 연출됐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천막설치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유총 광주지회 측은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농성하던 곳에 우리도 천막을 편 것으로 차량을 빼달라고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 주장을 펼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소속 광주 유치원들은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 인도와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이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볼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스쿨 미투' 교사 5명 검찰 송치

11명은 '혐의없음'불기소

광주 M고 '스쿨미투' 사건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M고교 교사 1명을 기소의견으로 24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폭언과 욕설 등으로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다른 교사 4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 사건 관련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경찰은 다만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의 교사 분리·수사 의뢰·직위해제 조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학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 중 11명의 교사에 대해 재평가 여론이 나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천재소년 송유근 학생 신분 유지…제적 집행정지 결정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해 제적처분된 천재 소년 송유근(21)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을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 9월 제적처분 됐다. 재학 연한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씨는 제적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목포 북항서 승용차 추락

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께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김모(47)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김씨를 구조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차량이 바다를 향해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버스터미널서 흡연 시비 70대 노인-60대 경비원 주먹질

쌍나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담배를 피던 70대 노인과 60대 경비원이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여 나란히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71)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터미널 경비원 오모(6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오씨도 이씨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비원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흡연금지 안내판을 무시하고 흡연을 해 '터미널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며 억울함을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10690	1	북구 삼각동 755-22 호반아파트 102동 1층 107호 42.51㎡	아파트	67,000,000 67,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8타경 12658	1	남구 금화로446번길18, 101동 5층 606호 [월산동,보라아파트] 45.21㎡	아파트	68,000,000 68,000,000	관리비는2018년2월부터미납된상태
2018타경 12757	1	광산구 비아로62번길7, 105동 1층 107호 [도천동,중흥아파트] 59.94㎡	아파트	87,000,000 87,000,000	
2018타경 13323	1	남구 서문대로678번길7, 107동 10층 1008호 [진월동,대주아파트] 84.41㎡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2018타경 13811	1	북구 하서로71, 101동 5층 501호 [운암동,유탑하늘세움아파트] 84.9952㎡	아파트	210,000,000 21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13910	1	서구 쌍촌동 999-32 139.2㎡	대	131,719,360 131,719,3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제시외가추12㎡는본건및인접지[쌍촌동992-2]양지상소재
		서구 월드컵4강로152번길 10-4 1층72.36㎡ 2층46.08㎡ 부속건물 물치2.88㎡ 제시외 가추 등 38.7㎡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1330	1	동구 내남동 산122 2정3단보	임야	85,884,000 85,884,000	일괄매각.맹지
		동소 산124-1 2정3무보	임야		
2018타경 12375	3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16 174㎡[분묘소재여부불명.유실수목[감나무17주]및수목[소나무5주]매각제외]	전	23,520,000 23,52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목록4현황목전
		동소 585-17 218㎡	전		
2018타경 12962	1	나주시 대기동 산67-1 14281㎡[지적경계불명하여경계확인필요시측량등확인요.분묘소재여부불명]	임야	371,306,000 371,306,000	공부상맹지,현황세로[불]에접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66136	1	북구 운정동403 1193㎡[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발할가능성있음.연고자미상분묘3기소재.수목[매실나무50여주]제외]	전	48,913,000 48,913,000	지적도상맹지이나소폭농로가까이있는것으로조사
2018타경 67733	1	광산구 양동 673-4 1330㎡[박서구지분1/3 전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일부면적이소하천예정지.지적도상맹지,인근농로와의연결통로통해농기계출입가능조사]	답	16,580,542 16,580,54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 11525	1	나주시 이창동 734-1 332㎡	대	936,477,200 936,477,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2일단의상업용건부지,1층스크린골프장,2층실내골프연습장으로이용중
		동소 734-2 332㎡	대		
		나주시 풍물시장2길 21 1층377.08㎡ 2층388.68㎡ 3층230.84㎡[공실] 제시외 창고 등 105.16㎡[건축물대장상용도1층제2종근린시설[음식점]이나현황스크린골프장]	근린시설		
2018타경 13163	1	서구 시청로13, 3층 321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근린시설	76,000,000 76,000,000	
[자동차,중기]					
2018타경 68316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1604호[치평동,랜드피아오피스텔16층] 등록번호:15고6227 차명:제네시스 연식:2010	자동차	13,000,000 13,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31하나로에프엔씨
2018타경 69302	1	사용본거지: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1, 308동 2004호 [신방동,향촌현대아파트] 등록번호:35두0467 차명:QM3 연식:2016[경유차량,앞범퍼가다소파손된상태]	자동차	13,500,000 13,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8타경 70012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53[진월동] 등록번호:69마8724 차명:쏘나타[SONATA] 연식:2014[조사시점배터리방전상태,엔지오일계통결함의심으로조사]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여대길222-1제3차송암주차장
2018타경 70395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월산로 265 [농성동] 등록번호:79두2007 차명:베일리[BAILEY] 캠핑트레일러 연식:2018	자동차	38,000,000 38,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여대길222-1제3차송암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1. 8.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1. 15.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